

무안 갯벌낙지 어획량 급증...자원 회복사업 성과

지난해 15만점 잡혀 전년비 27% 늘어...목장화·산란장 조성 등 노력 27~28일 이틀간 무안읍서 낙지 축제...경매·공연 등 다양한 행사

‘갯벌낙지’ 원조를 지키기 위한 무안군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낙지 어획량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낙지 어획량은 15만점(1점 20마리)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이는 남획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안군 낙지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왔던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지난 2007년 무안에서는 낙지가 29만점 잡혔으나, 10년 뒤인 2017년에는 약 10만점 수준으로 급감했다.

무안군은 지역의 대표 어업인 갯벌낙지를 유지하기 위해 낙지자원 회복에 힘써왔다.

지난 2007년부터 탄도만에 약 200ha 규모 낙지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이곳에 대해서는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했다.

2017년에는 직접적인 낙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교점된 어미 낙지를 방류하는 ‘낙지 목장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무안군은 3만6000마리의 어미 낙지를 ‘낙지 목장’에 방류했다.

무안군과 지역 어촌계는 어미 낙지가 부화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해왔다.

무안군은 2020년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탄도만 일원에 인공 낙지 산란장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어미 낙지와 칠게 등 먹이생물을 방류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낙지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무안군은 어미 낙지를 방류한 뒤 자원량 변화 등을 분석해 자원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무안 갯벌낙지의 역사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 기록에서는 나주목 무안현(현재 무안군)에서 낙지를 토산품으로 진상했다고 나와 있다. 무안읍지(1895년)에는 낙지가 주요 토산물로 쓰여 있다.

무안은 연안 저서성으로 갯벌이 많아 낙지가 서

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안 앞바다는 부드러운 황토 갯벌로 만들어졌으며, 먹이생물인 칠게와 갯지렁이가 풍부하다.

무안 해역은 1호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1732호로 지정되며 청정 해역·갯벌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무안 갯벌에서 자란 낙지는 다른 지역 낙지보다 다리가 아주 길다. 무안 빨낙지(세발낙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물로 통한다.

무안군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무안읍 낙지거리와 중앙로 일원에서 ‘2023 무안갯벌낙지축제’를 연다.

무안을 시가지에서 갯벌낙지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연출한다.

축제 첫날에는 낙지 잡기와 낙지 경매를 진행한다. 창작 국악 뮤지컬 공연과 ‘청정 갯벌낙지 일등고을 무안군’ 선포식, 군민가요제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집밥 낙지선생’ 토크쇼와 무안 꿈의오케스트라 공연, 축제 축하공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홍경민, 김현정, 여행스케치, 마로니에 등이 축하 무대를 꾸민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농수산물 홍보·판매 공간과 시식 공간, 관광객 쉼터 등을 만날 수 있다.

빨낙지거리 일원에서는 무안관광사진전, 도시도시재생 주민협회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시, 무안분청·천연염색체험, 초당대학교 뷰티케어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무안군은 축제 기간 중 바가지 물가를 잡기 위해 낙지거리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판매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축제는 원기회복과 피로회복, 향암효과가 뛰어난 갯벌 속의 산삼으로 불리는 무안낙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갯벌 낙지’의 주산지인 무안에서 오는 27~28일 ‘2023 무안갯벌낙지축제’가 열린다. 무안 갯벌에서 어민이 낙지를 잡아 올리고 있다. <무안군 제공>

28일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영암군 ‘모터 뮤직페스타’

‘영암모터피아’를 내건 영암군이 오는 28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3 모터 뮤직페스타’를 열어 3000여 명의 방문객을 맞는다.

영암군은 지난 4월 선정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모터 뮤직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영암군은 F1(포몰러윈) 경주장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먹거리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다.

지난 8·9월에는 ‘영암모터피아 어울림 사이클대회’ ‘영암F1전국마라톤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모터 뮤직페스타를 연 뒤에는 다음 달 19일 ‘전국베스트튜닝카선발대회’, 같은 달 25~26일에는 ‘영암F1전국듀에슬론대회’ ‘전국대학생포몰러자작자동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암 스포츠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터 뮤직페스타’는 자동차 경주장이 모터스포츠 전용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기 위한 ‘음악 잔치’로 꾸며진다.

영암군은 ‘현대 N페스티벌’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며 이번 축제에는 레이싱 동호인과 공연 관람객 등 3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F1경기장을 걷는 ‘그리드 워크’ ‘피트 워크’로 시작한다.

이후 상설블럭에서 인기 합합 가수인 사이먼도미닉, 로꼬, 그레이, 쿠기, 우원재, 리드파워 등이 관람객을 만난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

목포시 문화도시 성과 공유 27~28일 ‘문화항구페스타’

지난해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된 목포시가 문화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2023 문화항구페스타’를 오는 27~28일 이틀간 연다.

‘도시를 잇다 문화로(路) 목포로(路)’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용해동 갯바위문화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목포시는 목포문화도시센터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21개 사업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 성과를 시민과 방문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성과물을 전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체험 활동 등이 펼쳐진다.

행사 첫날 오후 1시에는 임진모 음악평론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문화항구페스타 개막식과 센터 이전 개관식, 문화도시 성과 공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문화의 날’ 행사와 목포 청년 문화나눔 공연, 목포 문화예술 학술 행사, 호남권 문화도시 교류 확장 ‘문화로(路) 회의’ 등이 펼쳐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화항구페스타를 통해 문화도시 목표를 널리 알리는 한편 목포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목포만의 특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며 “문화 목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강종만 영광군수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대상

노인복지문화 분야

강종만 영광군수가 노인복지문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노인복지문화대상’을 받았다.

영광군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천년 희망프로젝트 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시상식에서 강 군수가 노인복지문화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상임대표 조영관)가 주최하고 서울시, 대한노인회, 국기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시상식에서는 도전한국인, 노인복지문화, 미래창직 3개 부문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강 군수를 포함해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모두 28명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강 군수는 ‘영광형 노인복지 르네상스’를 내걸고 다양한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영광군은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영광형 노인 일자리’를 도입했고,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을 강화했고,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설 요양원 신축 등도 높이 평가됐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강종만(왼쪽) 영광군수가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노인복지문화대상을 받고 있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